

# 범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호랑이 기운 받아주세요.’  
근엄한 자세를 뽐내고 있는 호랑이, 아기새를 머리에 이고 가는 귀여운 아기 호랑이, 샘뚱이 난 듯 뽀로통한 표정으로 눈길을 어슬렁거리는 호랑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것 같은 깜찍한 호랑이 ...

다양한 호랑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젊은 작가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들은 유쾌하고 즐겁다. 기존의 호랑이 그림들이 웅장성이나 중후함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전시작들은 특 특 튀는 시각을 담아 해학적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각각의 작품에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듯해 이런 저런 상상을 하며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무등산 자락 우제길미술관(관장 김차순·광주

신년 세화전 ‘호호전’  
31일까지 우제길미술관  
김선화·나운주·온형·손홍려 등  
조선대 대학원 서양화전공 23명

동구 의재로 140-6)이 기획한 신년 세화전 ‘호호전(好虎展)’이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정초에 세화(歲畵)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 새해 첫날 임금의 신하들에게 부귀영화와 안녕을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하사했다고 한다. 세화는 나쁜 것을 쫓아내는 것과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가가호호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호랑이를 주제로 열

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운성·김유섭·문형선 교수 지도를 받고 있는 조선대 대학원 서양화 전공 작가 23명이 함께했다.

참여작가는 김선화·김유섭·김별·김월숙·나운주·박경희·박정일·배일섭·범지선·백설·서병주·손홍려·송지운·양호열·온형·유포숙·이영숙·이



은영·정송희·조위남·최문의·홍자경·황영일 등이다.

청년작가들의 손에서 되살아난 호랑이들은 아파트 등 현대적 건물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허를 내밀며 환하게 웃고 있기도 하다.

붉은 꽃 속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자세를 뽐내



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푸른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또 화려한 색깔과 자유분방한 붓터치는 화폭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

1 조위남 작 'White Tiger' 2 황영일 작 'Cat Woman' 3 김월숙 작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4 백설 작 'High'



오재열      탁인석

## ‘국제 PEN 광주문학상’ 오재열·탁인석 작가 수상

제18회 국제PEN 광주문학상 시상식이 최근 열렸다.

국제PEN광주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윤문에 오재열 시인, 산문에 탁인석 수필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시인은 지고한 어머니 상에 완성미를 보인 시조 전집 ‘사모곡’으로 호평을 받았다. 탁 수필가는 새평에세이집 ‘문학이라는 마법’에서 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특히 문학에서의 대응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아울러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로는 탁현수 수필가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수필에 대한 견고한 작품성 유지와 진지한 창작태도로 수필로서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점 그리고 창작력 못지 않게 수필 이론에 대한 탐구력 또한 남다르다”고 평했다.

한편 국제PEN은 1921년 영국 도슨 스크튼 여사가 설립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초점을 뒀다. 1954년 설립된 한국 PEN은 이듬해 비엔나 총회에서 국제PEN에 가입했다. 국제PEN 광주위원회는 한국본부 지역위원회로 내년 세계 한글작가대회 광주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뿌리깊은 마한’

전남문화재단 연구소 발간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연구소는 마한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한역사문화 교육총서 ‘뿌리깊은 마한(馬韓)〈사진〉’을 발간했다. 교육총서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일원을 순회하며 추진된 ‘지역맞춤형 전문가 초청강연’에서 소개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마한의 형성과 소멸, 마한인의 의식주, 마한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등 크게 3부로 나뉜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전남지역의 마한유산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색사진과 삽화도 수록했다.

재단은 중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교류했던 과거 마한의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뿌리깊은 마한(馬韓)’ 책자를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연구기관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모습

목포문학상 신인상 성보경 작가 소설집 ‘어쩌면 지금’ 출간

군부독재와 결핍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의 암울한 풍경을 그린 소설집이 나왔다.

제5회 목포문학상 신인상 수상 작가인 성보경의 소설 ‘어쩌면 지금’〈사진〉은 근대화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모습들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연작소설 형식의 소설은 한편 한편이 독립적인 작품이면서 전체가 연계된 하나의 서사로 다가간다.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작은 시가 통폐합되어 기존의 도시명이 없어진” 쓸쓸함과 허허로움이었다.

소설은 여공 금희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 일본인 현지처의 삶을 살아야했던 여인이다. 더욱이 그녀는 아버지가 결핵으로 죽자 학교를 그만둔다. 자유수출지역의 일본인 전자 부흥 회사에 취직한 금희는 회사 이사였던 나가무라의 아이를 임신한 채 목숨을 맨다.

소설의 시작은 다분히 비극적이다. 언니의 죽음을 목격한 순영이 화자로 등장해 서사를 이끌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국민 노비 문



서”라고 했던 국민교육 현장을 암송하며 언니의 명복을 빈다.

작가가 그리는 ‘과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날이라는 시간 앞에 펼쳐져 있다. 임정균 평론가는 “소설의 익숙함은 낯익은 소재와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오는 지도 모른다”고 평한다.

정지아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그 세월이 있어 우리가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서럽고 안타깝고 당당하게 그 세월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한 복원의 힘! 이런 소설이 있어 우리는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한편 성 작가는 광주대학교 대학원 문창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2015년 창작촌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됐다. 창작집으로 ‘국민교육현장’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오매광주’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세요

전일생활문화센터, 유튜브·통기타·향수만들기 강좌

광주동구행복재단이 운영하는 전일생활문화센터가 새해를 맞아 광주의 다섯가지 매력을 문화로 풀어 낸 ‘오매광주’와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년 문을 연 전일생활문화센터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으로 만드는 스마트 예술’, ‘예술적 글쓰기’, ‘색을 담은 한국화’, ‘정리의 달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유튜브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쉽게 배우는 유튜브’,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수업과’ ‘낭만있는 통기타’, ‘삼푸바 만들기’,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일(오후 6시40분) 개강하는 ‘쉽게 배우는 유튜브’는 총 7회차로 구성됐으며 영상 촬영 기법, 영상 편집 기법, 영상 기획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참가비는 7000원이다.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시간에는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사진꾸미기, 페이스북, 밴드 등 SNS 사용법, 스마트폰 정보 수집 활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오는 11일 시작해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6차시로 구성됐다.

통기타 기초부터 노래연주까지 배울 수 있는 ‘낭만있는 통기타’는 11일 시작, 2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개인 기타를 지참해야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향수 이론, 향료 시향, 조향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12일)와 친환경 삼푸바 직접 만들어보는 ‘삼푸바 만들기’(13일)는 각각 3차로 진행된다. 신청은 전일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2-225-424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